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4호 [무계 제26148호] 주제 107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배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인민의 운명개척과 중국의 역사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새 중국의 탄생 후 지난 69년간 중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슬기롭고 근면한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 제19대회가 제시한 전략방략에 따라 《두개 백년》목표와 중화인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입처럼 기쁘게 여기고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나는 습근평동지와 세차례의 상봉으로 맺어진 인연과 정을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앞으로도 당신과 손잡고 두 나라 로세대명도자들에게서 들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조중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형제적중국인민이 당신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세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전심으로 바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흥성번영과 중국인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제 107(2018)년 10월 1일 평양

김정은위원장은 현시대의 가장 출중한 정치지도자

여러 나라 신문들 특집

여러 나라 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영상사건물들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과 김일성주석》,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력사》 등의 제목으로 특집하고 글들을 게재하였다.

라오스신문 《매싸손》은 1948년 9월 9일은 통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창건된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는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다.

주석께서는 수심상상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나라와 인민을 이끄시었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침략력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전후 세대미우에서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석께서는 조선을 온통한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에 의거한 불패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시었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해 아버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추진되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 사상리론적세우마당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인민과 전보적인류를 위해 남기신 귀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정책을 소개하고 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김정은동지와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은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시술하였다.

이 나라 신문들이 《매뎃파오》, 《비엔티안 마이》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라이의 《성상일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은 끊임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이 선택한 자주에로의 길은 험준한 길일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결코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조선인민은 온갖 도전을 과감히 이겨내고 자기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찬탄하는 자주, 자립, 지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웠다.

세계적인 학부와 인공인이 지배하던 나라가 오늘날 같이 번모될수 있을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볼수있었다.

조선의 선대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대의 끝없는 경모를 받으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이다.

조선은 이 광고 계시는 김정은위원장에서 현시대의 가장 출중한 정치지도자로 세인의 작광을 받고계신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호프를 주도해나가는 그의 뛰어난 정치실력은 온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의 령도밑에 조선은 보다 훌륭한 미래에로 비약해나갈것이다.

인디언신문 《월즈 미러》, 풍고신문 《라 빠르오프》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찬양하고 조선인민은 나라의 무궁번영과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을 쌓으신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재래로써 어머니로,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풍고신문 《라 빠르오프》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역사를 찬양하고 김정은위원장을 동지께서 계시는 조선은 자주, 성세로, 존엄은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지역기구인사 담화 발표

혁명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환영하여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앙드레 로베르에게 전한다 9월 2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

계 진보적인인민들은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이런에 진행된 뜻깊은 상봉과 회담은 김정은각하의 숭고한 민족애와 평화수호의지,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로서 북남관계발전을 가속화하는데서 새로운 이정표로 된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기에 조선반도에는 화해와 민영,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다시한번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할 뜻깊은 시기에 나라의 위력한 대약기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자립적금융업발전이 이바지할 토 하나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펼쳐나선 황철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산소전로와 산소분리기를 비롯한 주체화대상공사를 완공함으로써 100% 우리의 기술과 연로, 원료를 의거하여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말을 일어놓았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이 9월 30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로두령동지, 황해북도 및 관계부문의 일꾼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연안단위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지역장성,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주체화대상공사를 훌륭히 완공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끝없는 공격정신과 헌신적투쟁으로 주체화대상을 완공하여 나라의 강철기둥을 튼튼히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었다.

감사문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주체철사상을 일장에서 충직하게 발현어온 황철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현대적인 강철재생산을 새로운 임태세에 대한 전무적업무를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건설대보수사업소와 돌격대의 전투원들은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도 립체



지 않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힘찬 투쟁을 벌여 방대한 주체화대상공사를 빛나게 계속하는 위훈을 세웠다고 감사문은 강조하였다.

감사문은 주체화대상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천대의 설계도면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우리 식의 산소분리기 조종계와 서동위안간도에 의한 당철재생산기술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여 완공의 지름길을 개척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건설대보수사업소와 돌격대의 전투원들은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도 립체 사상의 강자, 애국자들로 준비시키는 철의정신적사상공세를 중단없이 전개하고 막대한 전두지휘와 이신적공기업추진을 실시조립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고 감사문은 강조하였다.

감사문은 공무, 동력, 운수, 후방부 문 로동계급이 최선에 투기와 헌약을 보내는 심정으로 맹렬한 증진투쟁, 증중투쟁을 벌려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지체없이 보장하고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으며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머리는 집단주의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지도소조와 연합기업소당위원회, 공사시회부 일꾼들은 전투원들을

술함을 흘리고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녜명원들을 비롯한 총력시인들의 애국적정열은 황철로동계급의 철의정신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감사문은 강조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주체철생산 체계가 더욱 원비됨으로써 금융공업의 자립적태도를 강화하는데 대한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장군님의 유공한행의 관동있는 전로가들과 락민기계연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유능한 기능공들의 적극적인 방호속에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강철전사들의 뜨거운 열정에 심광의 박동을 맞추며 전투현장에서 구

으로 장성시수수 있는 튼튼한 담보 불 미련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장려하는데 공헌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였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로두령동지의 감사문에 이어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지체인 리봉립동지, 직장장 김명철동지, 정보기술연구소 소장 원동철동지가 드론했다.

연설자와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은 김정은위원장의 뜻 받들고 우리 식의 새로운 강철재생산공정을 훌륭한 일머세로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

을 베풀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주체철생산체계의 최후완성을 위한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강력한 당지도소조로 과감해주시었으며 대상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결심은 온 실현이며 승리를 필로를 실감없이 새기고 황철로동계급이 자력강성, 전인불발하여 짧은 기간에 주체화대상공사를 끝내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주체철생산에서 데비야, 데혁신을 일으켜 철강재로 당중앙위원회를 감사용위하여 자랑스러운 전훈을 계속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역장성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투쟁과 진전의 열기로 뛰어넘고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을 정상화하여 철강재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높이고 능률화공정사를 용이 크게 밀고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철을 비롯한 전국의 강철로동계급과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질좋은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금융공업부분에서 집단적, 현대적혁신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와 로동자들은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기세드높이 용기백배하여 금융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김의문이 제배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주체화대상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적극 이바지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20돐을 맞으며

백두대지에 새겨온 불라는 충정의 자욱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 20년간 백두대지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농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감자농사에서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감자농사 생산도인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들어주고 그 편을 위한 투쟁으로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왔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삼지연군의 감자발전계획을 높이시고 감자농사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한해에 수만이상 생산하는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무리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당사업의 희력을 집중하셨다.

삼지연, 대흥단, 백암군의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도당위원회에서는 책임적인 일꾼들을 천지에 파견하고 영농사업을 떠맡아주었으며 이곳 군들의 감자농사경험을 도입의 모든 군들에서 따르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농업부문 일꾼들은 삼지연, 대흥단, 백암군에서 감자농사경험을 널리 과학농사방법을 일으켜 감자정량수확과 품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담하고 용이한 작전을 펼쳤다.

일꾼들은 감자농사를 과학화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도안의 농업과학부문을 과학자, 연구사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생명선으로 붙여주고 연구사업을 끈기있게 벌여 대흥단군에 있는 감자연구소에서 육종하여 종자순화시킨 다수확종들의 감자종자를 도입의 전진적인 지역들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흥단군에서는 정연한 감자 종자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마다 많은 다수확종들의 감자 종자를 생산하여 감자농사를 과학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중에서는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감자농사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여 백두산 천연비료를 목초로 절구했으며 해마다 바람막이숲을 보식하거나 새로 조성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트랙트들과 견장농기계들에 대한 보관관리와 수리정비에 힘을 넣어 그 가용률을 높임으로써 군에서는 감자농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을 높이 받들고 백암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결같이 펼쳐나 올린 투쟁을 벌여왔다. 농기계수리기지를 충분히 꾸려놓고 올해만 해도 수십대의 감자종자파종기와 감자수확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종합적기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큰 역할을 내세웠다. 또한 실정에 맞게 트랙터와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휴양비를 진행하였다. 백암군을 끝으로 감자산지의 면들에 대한 당의 의도 높은 이 받들고 군에서는 도의 적극

적인 방조원에 방대한 면적의 감자포전을 조성하였다. 오늘 감자농사혁명의 불같은 삼지연군에서 세차게 타고오르고 있다.

두레전 11월 삼지연군을 찾아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모범단위로 주얼에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삼지연감자가공생산공장을 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실제로 부러 시공, 실비,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진부적과업을 피곤한 심정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꾼들과 전설자들은 동력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감자가공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대담하고 용이한 작전을 펼치고 군민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홍계수농장지구의 많은 면적을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일신시키는데 이어 다른 농장들에서도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용지에 따라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전진단위로 전진되어가고있다. 두비루스감자종자육종 및 제품

세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모든 농장들에서 돼지목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위한 확고한 전방이 열리고있다.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본보기 농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전국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추진되고있다.

지난 20년간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책임성있는 일꾼들을 삼지연, 대흥단, 백암군의 농장, 작업단들에 파견하여 영농사업을 적극 떠맡아주었으며 해마다 백암일꾼들이 현지에서 찾아와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다.

보전, 삼수, 운송, 풍서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들에서도 감자농사에서 큰 전진이 이루어지고있다.

지난 20년간 감자농사의 눈부신 전진과 더불어 사람도 산천도 불라보게 달라졌다. 여기에 감자농사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수확물이 있다.

삼지연군, 백암군, 대흥단군에서 감자정량수확도가 20년전에 비하여 3.7배~6.3배, 최고 7.4배로 정상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이 자랑한 성과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으며 당의 현대적 투쟁을 신념으로 새긴 도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은 식생활분야에서도 민족의 향취가 풍기면서 맛있게 영양가가 높으며 먹기에도 편리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리용하면서 유쾌하고 문명하게 생활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백두고원의 풍요한 가을날 우리는 삼지연 감자가공생산공장을 찾았다.

감자산지 포대지구에 웅장하게 일떠선 공장주머니에 들어선 우리는 지난 7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곳을 또 다시 다녀가셨다는 생각이 가슴울렁울렁했다.

우리는 지대한 림촌농장주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보이러갈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보이러갈 장소에 둘러서서 증기압은 얼마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적

은 석탄으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증기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국가과학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설계와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순환비동중보이러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원형형조기에서 말리워진 감자가공들이 포장되어 쌓이고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마음이 호뭇하였다.

《농마구수도 좋지만 감자가공로 만든 가공품은 더 구수하고 맛이 대단히 좋습디다. 삼지연군의 특산물 감자가공, 감자가공품은 온 나라에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길어졌다. 두레전 11월 삼지연감자가공생산공장을 직접 발기하시고 설계와 시공, 자체, 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에 떠날수록 더 거 백두대지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감자의 감자가공생산이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제물전시절에도 우리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 풍족하고 다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공장은 감자가공을 원료로 하는 감자가공식품들을 전문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꾸러지고있었다.

감자가 맛좋은 감자가공식품을 만들수 있는 데 또 또한 한층의 발미이다. 농미와는 달리 감자가맛은 그대로 살리는 감자가공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다.

동행한 일꾼의 이야기를 듣는

이렇게 말하는 일꾼의 눈가에 감자가공에 대한 자만이 넘쳐있었다.

감자가공을 할 때 국에 몇알 떠넣어도 좋고 만두도 만들고 지김도 지저먹을수 있다. 감자가공을 원료로 하여 영양쌀, 편육기, 파피, 국수, 우유를 만들수 있는데 또 또한 한층의 발미이다. 농미와는 달리 감자가맛은 그대로 살리는 감자가공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다.

...
동행한 일꾼의 이야기를 듣는

도처에 넘쳐나는 앞그루감자농사자랑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부고산지대를 비롯하여 갈자적지에서 갈자발전력을 크게 높이고 백방지대에서도 앞그루작물로 감자를 많이 심어 어디서나 피어나는 감자꽃

우리 농촌의 맑은생산지구가 불라보게 달라졌다. 생산성이 높은 다수확작물인 감자위주의 두벌농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 토지리용률과 집약화수준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감자농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관심도 높아졌다.

법랑과 중산간지대의 도, 시, 군, 구역의 농업지도기관들과 생산단위 일꾼들이 두벌농사작

도둑 하여야 합니다.》

감자농사혁명의 불길! 이것은 비단 북부고산지대의 감자산지들에서만 타번진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은 법랑지대, 중산간지대 농촌들에서도 앞그루감자농사자랑이 넘쳐나고있다.

전과 지회를 혁신적으로 해나가고있으며 감자 대배, 감자 대강령이두벌농사면적과 생산량을 해마다 늘이고있다.

그런까지 감자는 향강도를 비롯한 북부고산지대들에서만 재배하는것으로 되어있었고 법랑이나 중산간지대들에서는 미랑과 패기말에서나 농사짓는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기성변화가 깨졌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이 제시되자 전국의 농촌들에서 자기

지방의 기상후조건에 맞게 감자를 재배하기 위한 투쟁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황해남도를 비롯하여 법랑지대, 중산간지대 농촌들에서 앞을 다투어 논과 밭에 감자를 두벌농사작물로 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두해사이 그 면적은 수천정보에 이르렀다.

산간, 중간, 법랑 활겉들이 그 어느 농촌에서나 적지를 찾아 감자를 대대적으로 심기 위한 앞그루감자농사열풍이 세차게 일어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국농업부문본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협동농장들에서 실천을 통하여 우월성이 확증된 앞그루와 곱

이라는 놀라운 수확고를 기록하였다.

황주군 순천협동농장, 연안군 순천협동농장, 삼천군 반남협동농장, 안주시 순천협동농장 제3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농장, 작업단에서 앞그루감자재배에 앞선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여 정량수확을 내는 현실을 창조하였다.

이 단위를 넘어 아니다. 법랑과 중산간지대의 많은 농촌들에서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선진영농기술과 재배방법들을 받아들여 앞그루감자농사에서 정량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이 자랑한 현실은 과학농사열풍을 더욱 세지게 일으키며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는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방도에 의하여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위한 투쟁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삼지연군이 감자농사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진되고있다. 이것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을 위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열의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감자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앞으로 법랑과 중산간지대 앞그루감자농사에서서는 보다 큰 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금성

이름떨치지 되었으며 우리 나라 북부고산지대는 물론 나라의 모든 농촌들의 감자농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당시 제시한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현실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감자발전계획을 높이시고 감자농사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한해에 수만이상 생산하는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무리도록 하시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잊지 못할 지난 7월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찾아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1작업반 감자포전을 돌아보시며 올해농사작업에 대하여 물으시고 감자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날 제1작업반의 농기계와 트랙트포보실터, 그 가동률도 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면에서 감자농장에 와서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와 감자농사의 기계화비중과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농장의 종합적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겠다고, 농장일꾼들이 전문을 넓혀 세계적인 농기계발전추진에도 잘

그날의 당부 가슴에 안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에서 감자농사를 잘하여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디다.》

어느덧 20년세월이 흘렀습디다.

오르는 세월은 추억의 갈피마다에 이기를 띄운 다지던 지금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백두산천리발을 찾으시고 우리 당은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감자농사에 서부의 혁명을 일으키라고 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귀에 생생히 들려오는듯 합니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감자농사혁명을 힘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다수확작물들에 대한 재구조사업, 돼지, 닭, 오리, 칠면조, 물고기들을 생산하는데 대한 문제,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와 감자지정, 수송, 가공문제에 이르러 감자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신 위대한 장군님.

정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향강도는 그대로 감자도 전진되고 대흥단, 삼지연, 백암군은 끝없는 감자산지로

알고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워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디다. 그러시면서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이며 능률 높은 농기계를 도입하여 종합적기계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을 꾸리는 데서 새로운 기준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근 농업부문에서 이렇다 할 본보기를 무려놓은것이 없으나 20여년간 대상을 표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랑의 현실과 세 세기의 요구에 맞는 기준이 될수 있게 삼지연군과 군안의 농장들 중 중흥농장을 찾아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1작업반 감자포전을 돌아보시며 올해농사작업에 대하여 물으시고 감자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날 제1작업반의 농기계와 트랙트포보실터, 그 가동률도 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면에서 감자농장에 와서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와 감자농사의 기계화비중과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농장의 종합적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겠다고, 농장일꾼들이 전문을 넓혀 세계적인 농기계발전추진에도 잘



감자수확을 다그치고있다. -대흥단군 농사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감자농사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20년이 되었다.

정연하게 세워진 과학적인 종자생산체계

종자의 무비루스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감자농사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잊지 못할 20년전의 그날 감자농사에서 하는 투쟁이 기본이라고, 감자농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데서 농업과학적 감자연구소(당시)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무비루스감자원종생산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감자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무비

루스감자종자생산체계를 세울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는 큰 기여를 하였다. 밖세포를 파서 조직화하여 무비루스종감자를 생산하는것은 감자농사에서 하나의 혁명이었다.

대대로 내려온 감자를 쪼개어 심던 토배기술사범이 영영 자취를 감추고 통일체로 심는 감자농사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

전국적관점에서 통일감자심기가 도입되고 조직적에 의한 무비루스감자종자생산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당시의 은정 어린 조직에 의하여 각 도에서 일떠선 무비루스감자종자생산공장이 한층 단단히 하고있다. 감자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종자문제에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다수확은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다.

프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온 나라가 허뿔뿔을 출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내서야 능률 높은 농기계를 갖춘수단들을 마련해주도록 온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집체적인 이면 크나큰 사랑이 있어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가 남면서 실현된 백두산천리밭에서는 해마다 다수확의 자랑한 결실이 마련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열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지난 20년전의 나날들을 거다란 긍지속에 돌아보며 다시금 확신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방도에 의하여 장군님의 고강군인 삼지연군이 가까운 앞날에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가 완벽하게 실현된 표준모범단위로 무리하게 피리라는것을, 그리고 삼지연군의 모범을 따라 온 나라에 감자농사열풍이 더 세차게 불어치게 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김성일

다수확의 튼튼한 토대

이제는 수많은 감자공품들을 무비루스화하여 오랜 기간 보존할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 시험관모양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양을 쓰지 않거나 대응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을 심히시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무비루스감자종자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무비루스검사용품을 우리의 힘과 기술을 모으고 얻어낸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무

기계화의 동음높은 드넓은 대지

전진 백두산천리밭에 펼쳐진 이 자랑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시었는데 수령님의 로고를 생략해서라도 자신께서는 대흥단군에 미역수도 높은 트랙트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를 보장해주어 남면서 종합적기계를 실현하게 하려고 한다고

추진 백두산천리밭에 펼쳐진 이 자랑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시었는데 수령님의 로고를 생략해서라도 자신께서는 대흥단군에 미역수도 높은 트랙트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를 보장해주어 남면서 종합적기계를 실현하게 하려고 한다고

추진 백두산천리밭에 펼쳐진 이 자랑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시었는데 수령님의 로고를 생략해서라도 자신께서는 대흥단군에 미역수도 높은 트랙트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를 보장해주어 남면서 종합적기계를 실현하게 하려고 한다고

추진 백두산천리밭에 펼쳐진 이 자랑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시었는데 수령님의 로고를 생략해서라도 자신께서는 대흥단군에 미역수도 높은 트랙트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를 보장해주어 남면서 종합적기계를 실현하게 하려고 한다고

전국감자연구, 생산, 가공부문 과학기술성공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와 농업연구원의 주최로 전국감자연구, 생산, 가공부문 과학기술성공발표회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량강도 과학기술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정양농업대학,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농업연구원, 량강도농업과학연구소, 리산농업대학, 삼지연감자가공생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여기에 참가하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중자가 수여되고 배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발표회기간 참가자들은 감자병원관들의 분자적종합진단방법과 감자원종생산에서 온도처리방법에 대한 강의의를 받았다.

또한 여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감자공품, 식용성능성 등 이 출품된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었다.

【조선중앙통신】



무비루스감자원종생산에 지혜를 바쳐간다. -농업연구원 감자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다들 물어봐서 부속에서 밥을 나눠 먹어 주려한다

혁명선배, 값높은 그 부름과 함께

햇빛도 따사로운 이 땅에 또 다시 찾아온 국제로인의 날이다. 이 날을 맞으며 로동당의 은덕을 노래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노라니 제도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넌로자, 어느 나라에나 그 부름은 있다.

하디면 자본주의나라에서는 권태와 멸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넌로자들이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에서는 어떻게 불리우는가.

혁명선배! 혁명불수족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랑과 의미가 차인치는 이 땅에서 존경의 대명사로 자랑스러운 그 부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넌로자로부터 대한 투자가 계몽적으로 늘어나 로인들의 생활조건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로 세운 넌로자들이 전사적인 관심속에 떠돌아다니며 모 보랐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선배에 대한 태도를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합일혁명투사들과 전쟁

로병들, 전후 권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을 비롯하여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로자들을 품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었다.

전정 날이 갈수록 뜨거워만지는 우리 당의 한창대는 사랑과 온정속에 전강한 몸으로 여생을 보내는 우리의 넌로자들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의 복된 삶을 전하지 않는다.

경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나는 조국에 어떻게 보탬을 준 것인가?

이것이 보답의 길을 걷는 넌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난 9월 공화국창건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매비논 기념투에는 80나이를 가까이하고있는 한 로인이 올랐다.

이름은 서재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있을것이다.

그는 영예군인의 안해로

한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수십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령히 높이 우리로모시기 위한 사업에 충정을 다해왔으며 인민군대원호사업에 대한 민중적 주요단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의껏 해온 전사자복부의 나날 간조장이었던 그는 한바대의 군인이 영예군인이 된것을 알고는 서슴없이 그의 일생의 길동무가 되었고 그가 한생 혁명의 불을 피워가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었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부까지 합쳐 살아온 인은 당의 온정에 보답할 일념으로 애국충정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삼지연혁명전적지건설장식공작업단 명예식공,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명예용해공, 전림미제련합기업소 초고전력발전기 명예용해공, 수도리역운수국 총산원도전차사업소 명예종업원...

그 어떤 대가나 명예도 바림이 없이 조국의 메일을 위해 후대들 명망들을 아낌없이 바치며 후대들의 심장속에 애국열, 투쟁열을 더해주고있는 동상군인의 정경로병들과 로당원들이며 비록 높은 몸이지만 나루도 심고 유류자재를 보

내는 일에도 앞장서는 대동강구역의 비영애로인, 당원은 죽는 순간까지 당원이어야 한다며 누가 보던말던 당직방임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고 있는 최선군의 리명호로인, 스스로 《산림감육원》, 《수배원》, 《농장원》이 되어 애국의 한결을 견고있는 최영명의 로당원...

이런 성실한 인간, 참된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의 넌로자들, 혁명선배들이다.

어제는 조국의 무장병영을 위해 배와 땅을 바쳤고 오늘은 후대들에게 애국의 바름을 이어주며 생활의 거름도, 본보기로 사는 그들, 자연의 정경에는 길이 지는 가슴이 있어도 그들의 애국의 마음에는 정령 로되려 있을수 없는 것이다.

생이 다할 때까지 조국을 위하여!

이것이 이 땅 그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우리 넌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자랑한다.

혁명선배, 값높은 그 부름과 함께!

본사기자 오은별

이 땅에 사랑의 태연해 혁명선배까지 만나인으며 복락을 누리려는 정수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 것은 과연 언제부디였는가.

이제부터 오해에 행복하게 사는것은 인간의 소중한 꿈으로 되어왔다.

하지만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를 떠나서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음을 우리 인민은 실재함을 통

이 땅에 사랑의 태연해 혁명선배까지 만나인으며 복락을 누리려는 정수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 것은 과연 언제부디였는가.

이제부터 오해에 행복하게 사는것은 인간의 소중한 꿈으로 되어왔다.

하지만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를 떠나서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음을 우리 인민은 실재함을 통

이 땅에 사랑의 태연해 혁명선배까지 만나인으며 복락을 누리려는 정수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 것은 과연 언제부디였는가.

이제부터 오해에 행복하게 사는것은 인간의 소중한 꿈으로 되어왔다.

하지만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를 떠나서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음을 우리 인민은 실재함을 통

이 땅에 사랑의 태연해 혁명선배까지 만나인으며 복락을 누리려는 정수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 것은 과연 언제부디였는가.

이제부터 오해에 행복하게 사는것은 인간의 소중한 꿈으로 되어왔다.

하지만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를 떠나서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음을 우리 인민은 실재함을 통

필수 주체사상법의 조각군상앞에서

이 땅에 사랑의 태연해 혁명선배까지 만나인으며 복락을 누리려는 정수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 것은 과연 언제부디였는가.

이제부터 오해에 행복하게 사는것은 인간의 소중한 꿈으로 되어왔다.

하지만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진정한 인민의 제도를 떠나서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음을 우리 인민은 실재함을 통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평양시년로자들의 바드민톤경기를 보고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야말로 자기들에게 문명하고 행복을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평양시년로자들의 바드민톤경기가 진행될는 소식을 듣고 얼마전 우리가 청춘기의 바드민톤경기장을 찾았을 때였다.

경기관람입구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원 리진명 동무는 넌로자들의 경기열의가 대단하다고 하며 경기관안으로 안내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바드민톤경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부류(남자 60살-69살, 여자 55살-64살)와 2부류(남자 70살이상, 여자 65살이상)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지난해 참가했던 선수들이 거의 다 참가하였다 고 한다.

경기관 한쪽에서 1부류 남자복식경기가 진행되고있었는데 응원자들의 열띤 응원속에 선수들은 아슬아슬한 경기장면을 연속 펼쳐보이고있었다.

앞선에서의 밀어치기, 연속강타와 살락공 등을 능숙히 배합하며 점수를 올리는 리동수,

박동오로인과 앞선과 뒤선에서 서로의 패인 걸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김봉길, 김철규로인간의 경기는 판타지들의 손에 팔을 휘저 하였다.

1회전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상대를 이긴 리동수, 박동오로인은 더욱 자신만만하게 2회전에 진입하였고 김봉길, 김철규로인은 순간적인 강타와 앞선내러치기 등을 배합하며 공격속도를 높여나갔다. 두 선수후보조들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리동수, 박동오로인의 승리로 판났음을 알리자 경기관에는 떠나갈듯 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리동수로인은 흥분된 심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터놓았다.

《형제들이 되돌아온것만 같습니다. 이번 바드민톤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여 로동당의 은덕을 목격할 노릇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혼자만의 심정 만이라 하랴.

날아오는 공을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제지하지 않던 리동수 73살의 류덕순로인의 가슴속에도, 손잡부식에 나선 로인 내외를 비롯하여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가슴속에도 당의 품속에서 로당원장처럼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는 감격과 환희가 뜨겁게 넘쳐 흐르고있었다.

경기장에 나선 넌로자들의 밝은 모습을 대하는 우리의 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혁명가들과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과 공로자들, 이름없는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이 당의 크나큰 사랑과 격려속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존경속에서 혁명의 불을 계속 피우며 값높은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신의 주시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면 우리가 배운공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잊지않고 정경로병은 《로》를 잘 썼고 정수들의 로인은 두 《말》을 지자처럼 맛물려며 보

백운공원에서 하루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정수들과 신민들의 로인들이 모여앉아 장미며 피노를 두고있었다.

장미경기에 나선 사람들은 신민중에 살고있다는 정경로병과 정수들의 로인들이었다.

일수를 내다본다는 상징기운들의 경기였다.

자못 열속한 분위기가 감돌고있는 속에 두 로인을 점점이 제외한 사람들에서 선수하는 소리도 연방 들려왔다.

정경로병은 《로》를 잘 썼고 정수들의 로인은 두 《말》을 지자처럼 맛물려며 보

전쟁로병들을 위한 마음

한식술 뜻깊은 공화국정선 일흔을 맞은 아침이었다. 천리마구역 문화동에 위치한 심영식정경로병의 집으로 강선공업기술대학 학생 신지향동무와 그의 가족이 찾아왔다. 그들은 성의껏 마련해가지고온 명절음식들을 펼쳐놓고 심영식정경로병과 함께 즐겁게 명절을 쇠었다.

심영식정경로병의 가슴은 저쪽을 휘어 피울려 싸운 정경로병이로 명절날과 생리들의 물론 때없이 찾아와 친현육의 정을 두터이하고있는 이 가족이다. 지난해에 그의 가족은 심영식정경로병의 생활에서 불편을 느꼈을때로

사람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군상관리소의 일꾼들과 총원원들에게 대한 자랑도 있었고 전쟁로병들의 친자식이 되어 생활의 여러 지기들마다 따듯이 보살펴주고있는 군연의봉사관리소의 일꾼들과 총원원들의 아담다운 소행도 적혀있었다. 그들의 소행을 전하면서 정경로병들은 비록 몸을 늙였지만 고마운 어머니당을 위하여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충정다할 마음속정정을 따올렸다.

우리는 정경로병들이 보여 여는 헌물의 짧은 편지를 통해서도 정경로병들을 우리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슴속부터 깊이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발휘된 혁신적인 사업기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양성관 의욕을 가지고 일관없이 크게 벌려며 공장을 뚫어주어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최근년간 강성대지공정의 축산물생산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뜻깊은 올해에도 년간계획을 다시 밀어붙여 5년전적목부수확량을 위한 축산물생산에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또한 앞으로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끌어올릴수 있는 근본한 물질기술적도태를 갖추어놓았으며 공장원리팀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역정책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축산물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차례로 풀어나가면서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일꾼들의 사업정열에서 본받을수 있는것이였다.

우리는 당정책의 운명은 일꾼들의 어깨에 놓여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대단한 작전, 능숙한 지휘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완강하게 뚫고나가면서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있는 이곳 일꾼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에서 그 대담을 찾아보게 된다.

진척의 돌파구를 여는 기수가 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뜻을 차지하는 축산물생산의 한개 단위를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진 일꾼들은 어떤 사업기풍을 발휘해야 하는가.

지난 달 15일이였다. 1, 4분기에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축산물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열린 공장일꾼들의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된 분위기에운데 진행되었다.

공장의 물질기술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던것이였다. 특히 불합리한 전력공급상태를 정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하자는 김영호지배인의 대담한 말기는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높이 받들고 전사관철의 의지로 심정을 불태우던 열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꾼들이 애를 들여내고 있는 문제를 풀며 대중을 이끌어가는 기수가 되고 실천가가 되어 병도 엄격단련의 영예를 더 높은 축산물생산으로 빛내여나간다.

그의 말은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돌이켜보면 수십년간 불날 한창 정실중에 있는 공장을 찾아주시오 무슨 일이나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과도 하시면 세련드와 목재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온정이 의하여 일떠선 강성대지공장이었다.

병도엄격단련의 영예를 빛내여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디면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 우에 손을 내밀 생각부터 헌법의 희생자가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의 회의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비장한 각오를 일깨워주시는 계기가 되었다. 일꾼들은 이 사업을 로력이자 개인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로서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관점과 사상문제도 받아들이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꾼들은 모두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안고 제일 아담한 일꾼들을 스스로 제일이내었다. 필요하면 인수원이 되어 하루밤에 수백리길을 달려 긴급한 심리와 자책들을 해결해왔다. 때로는 심의어떤 후방사업으로 전무원들의 시

를 줄여주기도 하였다. 일꾼들의 이신적인 산 모범은 때마침의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이다.

대중의 정신력이 발휘되니 그처럼 어렵게만 생각되던 필요한 설비, 자재가 확보되었고 공사를 시작할만 할 수 있었다.

지배인과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창조적열정을 적극 발휘시키자고 단언 하였다.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총이 크게 전개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사상이 발달되면 모든 일은 풀리고 사상이 잠자면 열렸던 그러도 밝혀버렸다.

공사과정을 통하여 이 전력을 다시 한번 심장에 쏘아박은 일꾼들은 든든한 배심과 용기를 넘쳐 흐른 목표론 제기하였다.

그것은 오비비실물을 발표하며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하여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창조적열정을 적극 발휘시키자고 단언 하였다.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총이 크게 전개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사상이 발달되면 모든 일은 풀리고 사상이 잠자면 열렸던 그러도 밝혀버렸다.

공사과정을 통하여 이 전력을 다시 한번 심장에 쏘아박은 일꾼들은 든든한 배심과 용기를 넘쳐 흐른 목표론 제기하였다.

그것은 오비비실물을 발표하며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하여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창조적열정을 적극 발휘시키자고 단언 하였다.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총이 크게 전개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사상이 발달되면 모든 일은 풀리고 사상이 잠자면 열렸던 그러도 밝혀버렸다.

공사과정을 통하여 이 전력을 다시 한번 심장에 쏘아박은 일꾼들은 든든한 배심과 용기를 넘쳐 흐른 목표론 제기하였다.

이제 더우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이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간다는 것은 지난 시기같은 단순한 것 같지 않게 되었다.

이때 시당위원회의 책임일꾼들이 공장에 내려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지배인과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창조적열정을 적극 발휘시키자고 단언 하였다.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총이 크게 전개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사상이 발달되면 모든 일은 풀리고 사상이 잠자면 열렸던 그러도 밝혀버렸다.

공사과정을 통하여 이 전력을 다시 한번 심장에 쏘아박은 일꾼들은 든든한 배심과 용기를 넘쳐 흐른 목표론 제기하였다.

그것은 오비비실물을 발표하며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하여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창조적열정을 적극 발휘시키자고 단언 하였다.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총이 크게 전개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사상이 발달되면 모든 일은 풀리고 사상이 잠자면 열렸던 그러도 밝혀버렸다.

공사과정을 통하여 이 전력을 다시 한번 심장에 쏘아박은 일꾼들은 든든한 배심과 용기를 넘쳐 흐른 목표론 제기하였다.

이것이 더우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이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간다는 것은 지난 시기같은 단순한 것 같지 않게 되었다.

이때 시당위원회의 책임일꾼들이 공장에 내려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지배인과 리정학초급당원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창조적열정을 적극 발휘시키자고 단언 하였다.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총이 크게 전개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사상이 발달되면 모든 일은 풀리고 사상이 잠자면 열렸던 그러도 밝혀버렸다.

공사과정을 통하여 이 전력을 다시 한번 심장에 쏘아박은 일꾼들은 든든한 배심과 용기를 넘쳐 흐른 목표론 제기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찬 삶을 누리려는 로인들 - 평양시년로자들에서 -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북남관계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선언,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선언

남조선 각계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민족과 국제사회가 크나큰 격동으로 끓어오르고있는 속에 남조선 각계에서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환영하면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지하고 있다.

남조선의 민주개혁정당들과 각계 중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평양공동선언》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통일을 실현한 선언》, 《신뢰와 믿음의 선언》, 《조선반도평화를 활짝 열어젖히는 선언》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남조선인본들도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전환점》, 《남북사이의 군사적대결의 종식을 위한 시발점》 등으로 평하면서 이 선언이 《8천만겨레에게 보내는 최대의 선물》로 천하고 널리 보도하고 있다.

남조선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김정은위원장님이 조선반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 《역사의 아름이 꽃피고 바늘 그늘은 폭 오리라》, 등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칭송하고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어 남조선에서 대표적인 보수 단체로 알려졌던 《한국자유총연맹》까지도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높아지는 지지열기는 선언의 전면적의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에서 발언자들은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로 북과 남은 판문점 선언을 반드시 이행하며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켜 통일을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떠한 난관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외에 천명했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통일을 가로막던 장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된 긍지감으로 가

속이 실패한다고 하면서 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 앞장섰다고 절의다.

광주시장은 이번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으로 마련된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 광주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조선반도민사를 열어나가는 일은 힘겹고 귀찮음도 없이 끊임 없이 전진해야 하며 그 길에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 겨레가 함께 나설 것이라고 언명했다.

남조선의 경제계와 르몽제도 성명, 논평 등을 발표하며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선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선언이 북남사이의 오해 및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나갈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총은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키는 길에 성공한 발을 내딛던 《9월평양공동선언》을 조견없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총을 위원장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한 소감

을 피력하였다.

그는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만들어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이행으로 참가하였던것자체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말하면서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 광주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조선반도민사를 열어나가는 일은 힘겹고 귀찮음도 없이 끊임 없이 전진해야 하며 그 길에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 겨레가 함께 나설 것이라고 언명했다.

남조선의 경제계와 르몽제도 성명, 논평 등을 발표하며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선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선언이 북남사이의 오해 및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나갈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총은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키는 길에 성공한 발을 내딛던 《9월평양공동선언》을 조견없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총을 위원장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한 소감

을 피력하였다.

그는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만들어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이행으로 참가하였던것자체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말하면서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 광주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조선반도민사를 열어나가는 일은 힘겹고 귀찮음도 없이 끊임 없이 전진해야 하며 그 길에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 겨레가 함께 나설 것이라고 언명했다.

남조선의 경제계와 르몽제도 성명, 논평 등을 발표하며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선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선언이 북남사이의 오해 및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나갈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총은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키는 길에 성공한 발을 내딛던 《9월평양공동선언》을 조견없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총을 위원장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한 소감

북남수뇌상봉을 환영하여 지역기구 성명 발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환영하여 조선인민과의 원선 및 현대성 아 탐지역위원회가 9월 2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김정은각하의 평도민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확신한다고 하면서

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북남수뇌회담성과를 진실로 추켜들고 앞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상봉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유엔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중시시키고 반공화국제재를 철폐하

도록 하며 조선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정은각하께서 다시한번 중심으로 되는 속하의 인사를 드린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위한 지사와 현대성을 제확인한다.

청년강국의 강용한 기상을 과시 외국인들의 반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권 70세 이하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태백을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행진하는 청년들의 씩씩한 모습에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불굴의 힘과 기상을 보았다. 이처럼 굉장한 태백아위를 본 오늘날을 일성 일수 수 없었는가.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이론 내달기 자립회 위원장 안주 리르노 사기야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다.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청년대군을 가진 조선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태백아위를 할 수 없다. 청년강국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장엄한 태백아위를 통하여 김정은각하를 우러르며 조선청년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새 세대의 정신수준이 이렇듯 높기에 조선의 미래는 보다 휘황찬란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신화와 용기를 주는 최한한 불의 세비경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을 초월한 강용한 기상이며 청년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높여준다. 조선의 기상으로! 불의 외국의 깃들이 경탄과 찬사를 금치 못하였다. 우크라이나 기자, 문화인들의 《주체의 태양》 김정은각하의 연구회 대표 배병 고모 나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색있는 태백대형화로 힘있는 조국발달을 위하여 세계를 향한 행사를 단행해 본다.

평도자와 일심단결을 이룬 조선청년들의 참모습을 펼쳐보던 대서사적 화폭이다.

이러한 태백아위를 다른 나라들에게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여리우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 전구위원회대표단 단장 나가루 다그나제우는 조선청년들의 위엄과 기개를 최고의 최고이라고 하면서 흐트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정리에 진행된 조선청년들의 태백아위는 참으로 훌륭하다.

500만 청년전원들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태백을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행진하는 청년들의 씩씩한 모습에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불굴의 힘과 기상을 보았다. 이처럼 굉장한 태백아위를 본 오늘날을 일성 일수 수 없었는가.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이론 내달기 자립회 위원장 안주 리르노 사기야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다.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청년대군을 가진 조선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태백아위를 할 수 없다. 청년강국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장엄한 태백아위를 통하여 김정은각하를 우러르며 조선청년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새 세대의 정신수준이 이렇듯 높기에 조선의 미래는 보다 휘황찬란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은 국제로인의 날이다. 1990년에 진행된 제45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로인행동계획서》와 활동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10월 10일을 국제로인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로인의 날을 제정할 때는 세계적으로 로인인구비율이 계속 증가하고있는 실정과 관련하여 인구고령화추세를 대안 사회정책의 심을 높이고 노인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및 보건적 대책을 세우거나 가족을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엔에서 발표한 인구고령화 기준에는 60살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이상일 때 또는 65살이상 인구가 7%이상일 때 그 인구가 고령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세계인구고령화는 1997년에 벌써 시작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65살이상 인구는 세계총인구의 7%를 차지하였다.

유엔인구기구는 2050년에 가서 그 수가 21%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인자들에 대한 사회적 및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이 분야에 대한

자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가정과 사회적 보호와 혜택에 어영을 보내야 할 노인자들이 차별과 학대의 대상으로, 사회의 골치거리로 치부되고 있다.

결 아닌 점에서 추위와 굶주림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 제물 하나 건사할 길이 없어 거미에서 투쟁정신하는 로인들은 부지기수이다. 어떤 로인들은

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다.

조선로조보호맹맹 중앙위원회는 조직하여 로조보호사업용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장악토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조보호사업을 제정할 때 로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노인자들에 존중과 배려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다.

조선로조보호맹맹 중앙위원회는 조직하여 로조보호사업용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장악토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조보호사업을 제정할 때 로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노인자들에 존중과 배려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유엔총회 제73차 회의에서 연설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제2회 조미공동성명 발표를 환영하는 것이다.

조미공동성명이 원만한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쌓여온 조미사이의 불신의 장막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미 두 나라가 신뢰성에서 몸을 불어야 한다.

조선반도리행에 대한 신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구축과 평화형성의 원칙에서 합수 있는것은 하나의 단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에 대한 미국의 상용한 화담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남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북남수뇌상봉에서는 5개월동안 인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세차례

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의 제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신뢰를 쌓았으며 그 결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북남수뇌상봉에서 공동발표한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보여준바와 같이 올해에 풀어나갈 북남사이의 정치, 군사, 인도주의, 체육문화 등 포함 많은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이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높아졌다.

미국의 정치적판단과들은 순조로운 양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본봉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결정,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시급한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데서 핵심중의 핵심사항으로 된다.

우상은 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는것은 조선과 미국의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그림 《우려》를 표명하여 좋아하던 유엔인보보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의변하고있는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유엔인보보사회는 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을 환영하는 의장사를 발표하는데 대한 일부 선진국들의 제의마저도 거부하는 극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어 남조선주변 《유엔군사명부》는 북남사이의 판문점선언의 리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

《유엔군사명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의 총재위에서 미국의 지휘에 불복하는 《연할한 사령부》를 발휘하던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있는것이 문제이다.

유엔과 특히 유엔인보보사회는 헌장에 구비되어있는 자기의 사명으로부터 마땅히 국제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태발전을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앞으로 그 유엔은 본봉회의 주제를 조선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유엔안보사회에 유엔인보보사회는 본 미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적 관심사로 되고 있는 로인보호문제

감옥을 안식처로 여기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늙은이들이 자기가 낳아 키운 자식들에게서 찬대를 받고있으며 지어 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70년이 되었지만 세계적 범위에서 로인들의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올해 국제로인의 날에 즈음하여 로인보호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는것을 기본목표로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자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하여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다.

조선로조보호맹맹 중앙위원회는 조직하여 로조보호사업용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장악토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조보호사업을 제정할 때 로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노인자들에 존중과 배려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다.

조선로조보호맹맹 중앙위원회는 조직하여 로조보호사업용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장악토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조보호사업을 제정할 때 로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노인자들에 존중과 배려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다.

조선로조보호맹맹 중앙위원회는 조직하여 로조보호사업용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장악토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조보호사업을 제정할 때 로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노인자들에 존중과 배려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 김정은총리께서 올해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중국기행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투쟁으로 약동하는 대지

이러 우리는 한반도의 지리적 유리성을 리용하여 류동에서의 거점적혁명을 수행할것은 할민유형국제통일투쟁을 뜻했다.

공사의 기본방향은 편비하고 효과적이면 한편하고 손잡고의 신뢰를 믿는 한편-유형정기협력을 리용한 운수봉사이다.

정기협력은 2015년 6월 유엔이로의 첫출발을 때였으며 현재까지 한주일에 한번씩 양방향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유형정기협력은 국내에서는 동북과 화북, 화동의 대부분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고 국외에서는 블라디, 제코, 이페리아, 프랑크, 도이쾰란트, 그 주변국가들과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한편이나 하면-유형정기협력은 비용대상을 원천과 대련을 점거까지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봉사는 국내의 60여 개 도시에 수백개의 집합보관장소를 가지고있으며 유엔의 주요나라들에 걸 집합보관장소를 가지고 있다.

공사운영의 또 하나의 주요항목인 한편-로지정기협력은 2016년 2월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역시 양방향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한민유형국제통일투쟁의 봉사항목에는 그외에도 자동차와 배를 리용한 집합수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업무가 있다.

선진적인 발전실비수출로 국제적협조를 추동하는 동력제공기, 중국내륙의 경제지역들과 유엔을 연결해주는 물류투쟁의 기, 이것이 사회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편의 특징이고 경제적장점이라고 한다.

대경시와 함진시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자원우세, 지리적우세에 기초하여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국제협조의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며 자기의 특색으로 새시대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을 추동하고 있는 북동방성의 발전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다음엔 취재지인 내용풀지치구의 소재지 후회하오리시도 향하였다.

비행기시장이아로 드넓게 펼쳐진 호원풍경이 좋았다.

후회하오리시의 뜻의 명칭대로 거대한 호원지역을 품어내고 있는 후회하오리시는 수험의 도시로 인정받고있다.

지역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후회하오리시는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도시로 인기를 끌고있다고 안내원은 말하였다.

후회하오리시는 내용풀지역의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며 자기의 발전을 지향하는 이색로운 현실로 위제단을 맞이하였다.

후회하오리시의 뜻의 오엔 역사와 유구한 문화라고 한다. 매력적인 호원의 풍경, 적재가 짙은 민족적관습, 역사적유물들은 지역의 유구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최근년간 시정부가 인민생

발전 후 내용풀지치구정부는 자기들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이 곳 인민들은 자치구를 정개차 인명하는 지역, 문화가 발전하고 환경이 깨끗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행정구역, 사람들이 단결되어 화목하게 사는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취재단과 동행한 중국의 공안 수사아구 참사 피지공은 유미한 조진과 각종 수송망이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고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드넓은 호원지역에 펼쳐진 풍광발전기술의 모습이었다.

안내원은 내용풀지역에 풍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현재 풍력자원을 리용하는데서 자기 지역이 중국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자랑하는것이였다.

풍광에너지의 덕으로 내용풀지역의 전기값이 중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그리한 장점으로 하여 유명한 정보통신그룹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에 적극 진출하고있다고 한다.

승경등차기 이 지역을

오늘 중국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상권 69년을 뜻있게 기념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평도민에 항일전쟁과 국내혁명전쟁의 간고한 투쟁을 벌였던 중국인민은 마침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조선인민은 원선적인 중국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고 있다.

새 중국의 창건은 중국인민의 역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그때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새 생활장소의 길에 들어설게 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한 번혁을 이룩하였다.

한시 중국인민은 승경등차기 승경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평도민에 당 제19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관철투쟁에 대진하고있으며 새시대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위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중국의 북동방성 내용풀지치구에 대한 취재길에서도 중국인민이 거두고있는 훌륭한 건설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우리 취재단이 북동방성 대경시에 도착한것은 한낱이었다.

비행장에서 북동방성인민정부 외사관공실 대외리처 처장 류국준을 비롯한 관계부반 일꾼들이 우리를 친절히 맞이하였다. 독특한 풍지로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비행장으로부터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는 로정의 곳곳에서 가동하는 원유채취설비들의 작업모습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비쳐는 대경시의 특모습이다. 그것은 곧 원유의 도시이름인 대경시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원유와 같은 인연을

발전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과거와 현실, 미래와 걸부까지 실감있게 시작하던 4D영화 《새우의 꿈》이었다.

우리 취재단을 안내한 해설원은 석유관이 대경시의 주요 관광명소의 하나로서 원유산업과 관련한 과학지식을 보급하여 과학기술자문과거의 역할도 수행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원유의 도시에 대한 취재파정을 통하여 현재 대경시가 자원우세와 자연지리적유리성에 토대하여 중국의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국제협조에서 보급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년간 대경시에서는 국가가 추진하고있는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국제협조의 기풍을 몰아치고 국제적인 생산능력을 증진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규모를 높여왔으며 과학교육, 인본 등 분야에서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연선국가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였다. 그중 통해 대경의 전반적인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시에서는 하루시설의 초상발전기준을 높여는데 힘을 넣어 대경을 통과하는 중국-로지아 원유관 복선공사를 완공하여 년간 원유통과량을 늘여왔다.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은 승경등차기 2013년 가을에 착인 국제협조구상이다.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은 《미안길 경제지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일대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옛 비단길지역에 해당되며 《하나의 길》은 중국남부해안에서 출

발전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과거와 현실, 미래와 걸부까지 실감있게 시작하던 4D영화 《새우의 꿈》이었다.

우리 취재단을 안내한 해설원은 석유관이 대경시의 주요 관광명소의 하나로서 원유산업과 관련한 과학지식을 보급하여 과학기술자문과거의 역할도 수행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원유의 도시에 대한 취재파정을 통하여 현재 대경시가 자원우세와 자연지리적유리성에 토대하여 중국의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국제협조에서 보급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년간 대경시에서는 국가가 추진하고있는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국제협조의 기풍을 몰아치고 국제적인 생산능력을 증진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규모를 높여왔으며 과학교육, 인본 등 분야에서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연선국가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였다. 그중 통해 대경의 전반적인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시에서는 하루시설의 초상발전기준을 높여는데 힘을 넣어 대경을 통과하는 중국-로지아 원유관 복선공사를 완공하여 년간 원유통과량을 늘여왔다.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은 승경등차기 2013년 가을에 착인 국제협조구상이다.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은 《미안길 경제지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일대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옛 비단길지역에 해당되며 《하나의 길》은 중국남부해안에서 출

발전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과거와 현실, 미래와 걸부까지 실감있게 시작하던 4D영화 《새우의 꿈》이었다.

우리 취재단을 안내한 해설원은 석유관이 대경시의 주요 관광명소의 하나로서 원유산업과 관련한 과학지식을 보급하여 과학기술자문과거의 역할도 수행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원유의 도시에 대한 취재파정을 통하여 현재 대경시가 자원우세와 자연지리적유리성에 토대하여 중국의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국제협조에서 보급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년간 대경시에서는 국가가 추진하고있는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국제협조의 기풍을 몰아치고 국제적인 생산능력을 증진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규모를 높여왔으며 과학교육, 인본 등 분야에서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연선국가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였다. 그중 통해 대경의 전반적인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시에서는 하루시설의 초상발전기준을 높여는데 힘을 넣어 대경을 통과하는 중국-로지아 원유관 복선공사를 완공하여 년간 원유통과량을 늘여왔다.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은 승경등차기 2013년 가을에 착인 국제협조구상이다.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은 《미안길 경제지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일대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옛 비단길지역에 해당되며 《하나의 길》은 중국남부해안에서 출